

#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화

정재우\*

##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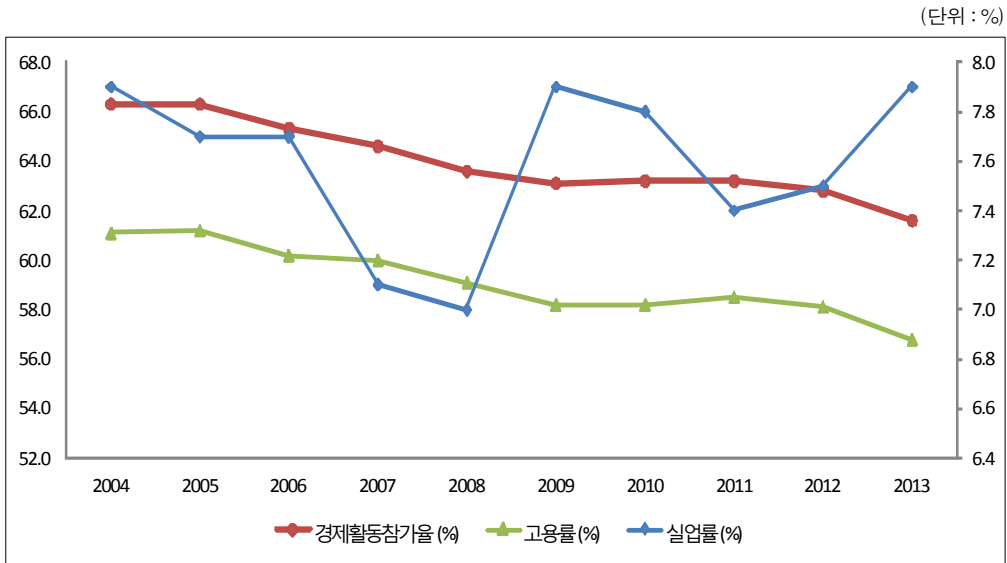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다. 취업난 속에서 소위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실제 취업자들 수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기업들은 경기불황을 이야기하면서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여,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규 졸업자들이 설 수 있는 노동시장의 면적을 좁혀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취업자 수의 감소를 초래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다양한 요인들이 20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본고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을 알아보고, 최근 10년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II. 20대 청년층 고용 현황

[그림 1]을 보면, 2004년부터 조금씩 감소하던 고용률은 금융위기 후 2009년 기준으로 58.2% 수준이고, 실업률은 7.9%였다. 이후 느린 속도의 경제회복과 함께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금융위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현재의 20대 청년 고용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jungx315@kli.re.kr).

[그림 1] 20~29세 청년층의 연도별 노동지표



주: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좌측 축 수치, 실업률은 우측 축 수치로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률은 56.8%로 이는 21세기에 접어든 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2013년 실업률은 7.9%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7.9%와 같았다. 따라서 청년 노동시장은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어려운 과제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20대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을 연령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녀 모두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특히 남성 청년층은 하락폭이 여성보다 컸으며, 금융위기로 고용시장에 충격이 가장 컸던 200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현재 55.7%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여성

[표 1] 20대 청년층의 성별 및 연령별 고용률

(단위 : %)

성별	연령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성	20~29세	63.2	62.4	61.2	60.5	59.2	58.4	58.2	58.3	57.3	55.7
	20~24세	46.0	43.8	42.7	41.7	38.9	39.1	38.3	37.2	39.1	38.2
	25~29세	75.5	74.7	72.6	71.3	70.7	69.4	70.0	71.6	70.4	69.6
여성	20~29세	59.2	60.2	59.4	59.6	59.1	58.0	58.3	58.7	58.8	57.8
	20~24세	57.3	57.2	53.9	52.5	50.3	48.6	48.8	48.2	48.9	47.5
	25~29세	61.2	63.0	64.3	65.4	66.3	65.6	66.2	67.8	68.0	6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의 경우는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3년 57.8%로 전년과 비교해 1%p 감소한 고용률을 기록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인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로 연령대를 2세 단위로 세분화하였다. 1세 단위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분석에 필요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표 2>와 <표 3>에 따르면 각 연령과 성별에 따라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실업자의 비중들이 상이하다. 남성의 경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취업자의 비중은 모든 집단에서 감소하였고, 상용직 취업자의 비중은 23세 이하에서는 감소, 24~25세는 유지, 그리고 26세 이상에서는 증가한 모습이였다. 특히 28~29세의 상용직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실업자 비중은 25세 이하에서는 감소하고 26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표 2 참조).

<표 2> 20대 남성의 세부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성별	연령별	연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전체	재학 학업	취업 준비	기타	
남성	20~21세	2004	37.8	9.7	14.0	9.9	4.2	57.5	32.7	2.0	22.8	4.7
		2007	33.5	5.5	14.0	10.4	3.7	62.3	43.4	1.4	17.5	4.2
		2010	33.6	6.2	15.1	8.8	3.6	62.3	41.2	4.1	17.1	4.0
		2013	30.3	6.4	14.7	7.0	2.1	65.9	44.3	3.0	18.7	3.8
	22~23세	2004	46.6	13.7	21.2	8.0	3.6	46.7	32.4	3.5	10.8	6.8
		2007	40.8	10.1	19.7	8.5	2.4	53.5	40.7	4.4	8.4	5.7
		2010	36.4	9.7	17.0	6.8	3.0	59.2	45.1	4.5	9.6	4.4
		2013	38.9	11.8	17.4	6.8	2.8	57.5	45.0	4.0	8.4	3.6
	24~25세	2004	55.4	24.7	21.3	4.6	4.9	37.4	25.9	5.8	5.7	7.1
		2007	52.8	21.5	22.2	5.3	3.8	40.7	27.5	7.8	5.4	6.5
		2010	50.3	23.3	18.4	4.1	4.5	44.3	29.2	9.3	5.8	5.5
		2013	49.9	24.6	16.9	4.5	3.8	43.7	29.9	7.7	6.0	6.5
	26~27세	2004	74.8	41.4	22.5	3.8	7.2	17.8	7.1	5.5	5.2	7.4
		2007	69.8	42.5	18.9	2.9	5.6	23.5	9.5	9.5	4.4	6.7
		2010	65.3	40.4	17.7	2.7	4.6	27.4	11.3	10.3	5.7	7.3
		2013	65.9	42.2	16.7	1.4	5.5	26.9	10.5	10.2	6.3	7.2
	28~29세	2004	83.4	46.4	22.9	3.6	10.5	11.0	2.1	4.1	4.8	5.6
		2007	81.1	52.0	18.4	3.7	7.0	13.3	2.5	6.5	4.3	5.7
		2010	80.7	52.1	18.3	2.3	7.9	13.1	3.2	5.6	4.4	6.2
		2013	80.1	54.8	15.9	2.0	7.2	14.2	2.8	6.0	5.4	5.7

주 : 각 연도의 합은 100%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모든 연령대에서 재학·학업(교육기관 재학이나 진학준비)의 비중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단에서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 남성들이 임시·일용직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용직 일자리의 취업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만 26~27세의 연령층이 노동시장에서 취업자로 진입하기 위해 졸업을 연기하면서 학교에 남거나, 취업에 필요한 시험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대체로, 이 연령대의 남성들은 4년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004년과 2013년의 비경제활동인구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청년 인구가 현재 노동시장 외부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

〈표 3〉 20대 여성의 세부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성별	연령별	연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전체	재학 학업	취업 준비	기타	
여성	20~21세	2004	44.9	13.7	19.8	7.8	3.5	49.7	38.1	3.6	8.1	5.4
		2007	38.6	12.5	14.1	8.6	3.4	58.6	48.6	3.8	6.2	2.8
		2010	38.1	10.5	16.3	7.9	3.5	58.7	46.8	5.0	6.9	3.1
		2013	36.4	11.7	15.6	7.2	1.9	60.2	50.3	4.2	5.7	3.4
	22~23세	2004	61.7	27.9	26.1	4.2	3.5	32.1	16.1	5.3	10.8	6.1
		2007	56.0	28.0	21.3	4.0	2.7	39.6	22.5	7.9	9.2	4.5
		2010	52.3	25.5	20.3	3.1	3.4	42.3	22.1	10.1	10.1	5.5
		2013	52.3	28.2	18.6	2.9	2.6	42.0	23.3	8.9	9.8	5.7
	24~25세	2004	70.3	37.2	26.3	2.6	4.3	25.7	4.5	4.9	16.3	3.9
		2007	68.2	41.9	20.8	1.8	3.7	27.6	6.9	7.2	13.5	4.1
		2010	66.9	41.4	20.7	1.5	3.3	27.5	7.9	8.3	11.4	5.6
		2013	64.0	42.0	17.5	1.0	3.5	30.8	8.4	10.3	12.0	5.2
	26~27세	2004	65.5	37.5	21.3	1.8	4.9	31.6	1.2	2.6	27.8	2.9
		2007	68.7	42.0	20.2	1.4	5.2	28.1	2.7	4.9	20.5	3.1
		2010	68.4	45.9	18.6	0.9	3.0	27.5	2.1	6.1	19.2	4.1
		2013	68.6	50.0	13.9	1.3	3.5	26.8	3.4	5.7	17.7	4.5
	28~29세	2004	53.2	27.3	16.8	2.2	6.8	44.7	1.2	1.4	42.2	2.0
		2007	59.5	35.2	16.4	2.1	5.8	38.6	1.1	3.1	34.4	1.9
		2010	62.2	42.5	14.3	1.5	3.9	35.1	1.5	3.4	30.2	2.7
		2013	68.0	48.9	12.8	1.1	5.1	29.5	0.8	3.2	25.5	2.5

주: 각 연도의 합은 100%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대 여성들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군복무의 의무를 갖는 남성과 비교해 재학·학업에 머무는 남성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그러나 기타의 이유로 인해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20대 후반에 들어 빠르게 증가한다. 하지만 그 비중도 2004년과 비교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사회진출 이후, 결혼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나가는 속도가 늦춰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3>에서 20대 여성은 전체 취업자의 비중이 25세 이하에서는 감소하고 있고, 26세 이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용직 비중은 22~29세의 집단들에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임시·일용직은 20대 전체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이 남성의 같은 비중보다 상승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학업 중이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비중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부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기타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 Ⅲ. 요인분해로 본 청년층 취업자 감소 원인

앞에서 우리는 20대 청년층의 성별과 연령별 비교를 통해 집단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학·학업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수의 20대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4년제 대학교를 진학하는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대학이나 고졸 이하의 학력자들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학교를 마친 청년(졸업·중퇴로 한정)들 중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친 청년과 전문대학 이하의 교육을 마친 청년들의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요인을 분해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인들을 세분하여 고용률 증감을 알아보았다.

$$E = P \times \frac{L}{P} \times \frac{E}{L} \Rightarrow \dot{E} = \dot{P} + \left(\frac{\dot{L}}{L}\right) + \left(\frac{\dot{E}}{L}\right)$$

( $P$ : 생산가능인구,  $L$ : 경제활동인구,  $E$ : 취업자,  $\dot{\phantom{x}}$ : 증가율)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취업률( $\frac{E}{L}$ ), 경제활동참가율( $\frac{L}{P}$ ), 그리고 인구비중( $P$ )으로 볼 수 있다. 취업자 수 증가율( $\dot{E}$ )은 생산가능인구 변화율( $\dot{P}$ )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율( $\frac{\dot{L}}{L}$ ), 그리고 취업률의 변화율( $\frac{\dot{E}}{L}$ )의 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4〉 학력별 청년층 취업자 증가율 요인별 변화

(단위 : %)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취업자 증가율	인구 효과	참가율	취업률	취업자 증가율	인구 효과	참가율	취업률	취업자 증가율	인구 효과	참가율	취업률
2004	-0.30	-1.84	1.76	-0.22	-3.22	-2.93	0.12	-0.41	4.48	4.00	0.40	0.08
2005	-2.62	-2.78	-0.02	0.17	-4.39	-5.37	1.45	-0.47	0.62	1.52	-1.70	0.79
2006	-3.50	-1.94	-1.56	0.00	-6.01	-6.65	-0.03	0.67	3.79	5.71	-0.52	-1.39
2007	-1.70	-1.31	-1.04	0.65	-2.86	-3.38	0.06	0.46	0.86	0.11	-0.48	1.23
2008	-2.47	-1.03	-1.56	0.13	-6.25	-4.72	-1.74	0.21	3.94	3.76	0.29	-0.11
2009	-2.98	-1.33	-0.72	-0.93	-5.50	-3.89	-0.64	-0.96	-1.16	-0.67	0.74	-1.22
2010	-1.83	-1.96	0.03	0.11	-3.27	-4.87	1.11	0.49	1.08	1.33	-0.35	0.10
2011	-1.55	-2.01	0.09	0.37	-5.81	-5.20	-1.09	0.48	3.78	1.56	1.86	0.36
2012	-1.08	-0.35	-0.70	-0.03	-0.69	-2.15	1.27	0.20	-2.97	-1.22	-0.62	-1.13
2013	-1.19	1.07	-1.80	-0.45	-3.99	-3.41	-0.19	-0.39	3.01	3.48	-0.27	-0.20

주 : 전문대졸 이하와 4년제 대졸 이상은 졸업·중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대 전체 청년층의 참가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감소하였다(표 4 참조). 참가율은 2010년과 2011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3년 현재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취업자 감소는 공급부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취업률도 참가율과 함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에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불안정한 요인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을 마친 청년들을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취업자 요인분해를 하였다. 그 결과, 학력별로 취업자에 미치는 요인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에서 우리는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취업자 증가율은 매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취업률은 2006년 이후, 2009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2012년까지 매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에 소폭 하락하였다. 그리고 참가율도 2013년에 소폭 감소하여 취업자 증가율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즉 2013년에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전체 인구의 감소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우,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 감소를 제외하고 그 외 기간에는 매년 증가해 왔다. 2013년 현재도 취업자 증가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참가율과 취업률은 감소하고 있어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효과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고학력자의 수적 증가

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고용상황 악화로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IV. 20대 청년층의 고용변화

앞서 우리는 20대 청년층의 성별·연령별·학력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성별과 학력(4년제 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sup>1)</sup>)을 묶어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표로 나타내진 않았으나, 지난 10년간 20대 남성의 학력별 집단들(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은 대체로 고용률이 감소하였고, 여성 집단들은 고용률을 유지(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하거나 증가(전문대졸 이하 학력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 1. 산업별 고용변화

<부표 1>~<부표 3>과 <표 5>~<표 6>은 2004년과 2013년 사이 각 집단들의 특성별(산업·직종·사업체 규모·종사상 지위) 고용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표에 제시된 2004~2013년 특성별 취업자 비중과 집단의 전체 고용률 증감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할 점이 있다. 20대 청년층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취업자 수의 변화는 현상을 왜곡해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집단의 생산가능인구수 변화에 따른 효과를 감소 또는 제거한 상태에서 청년들의 고용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각 특성별 취업자 수를 당해 연도의 생산가능인구수로 나누었다. 이렇게 계산된 2013년도의 취업자 비중에서 2004년도의 취업자 비중을 뺀 값을 표에 넣어 비교하고자 한다<sup>2)</sup>.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자 수를 표에 포함시켜 취업자 비중의 변화와 함께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부표 1>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남성의 고용률은

- 1) 전문대졸 이하와 4년제 대졸 이상은 졸업·중퇴자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 2)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표 1> 남성 제조업 취업자 비중의 2013년과 2004년 사이의 차이는 -6.1로 나타나 있다. 이 값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남성 중  $[(2013년 제조업 취업자 수 \div 2013년 생산가능인구수) \times 100] - [(2004년 제조업 취업자 수 \div 2004년 생산가능인구수) \times 100]$ 의 식으로 구해진 값이다. 이를 해석하면 2004년과 2013년 사이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남성의 고용률은 제조업에서 약 6.1%p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전체 약 3.6%p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제조업(-6.1%p)의 취업자 비중 감소가 가장 컸다.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0%p),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p) 등에서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남성 전체 고용률은 같은 기간 약 3.8%p 감소하였다. 주로 건설업(-2.4%p)과 제조업(-2.2%p)에서 취업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1.4%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3%p)에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여성의 전체 고용률은 같은 기간 약 0.8%p 감소하였다(부표 2 참조).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9%p)에서 취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교육서비스업(-10.2%p)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반대로 전문대졸 이하의 여성 전체 고용률은 약 3.5%p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집단과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2%p)에서 취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도매 및 소매업(-3.1%p), 금융 및 보험업(-2.1%p), 제조업(-2.0%p) 등에서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 2. 직종별 고용변화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직종별 취업자에 대해 알아보았다(부표 3 참조). 학력별 20대 남성 청년층 취업자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2004년과 2013년 사이에 4년제 대졸 이상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1%p), 사무 종사자(-1.9%p)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였다. 전문대졸 이하의 20대 남성 취업자는 서비스 종사자(2.3%p)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0.8%p) 순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5.0%p)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 고용률이 감소했다.

20대 여성 청년층의 경우, 4년제 대졸 이상은 2004년과 2013년 사이에 사무 종사자(2.8%p)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취업자 비중은 4.5%p 감소하였다. 반대로 전문대졸 이하 20대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7.3%p)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무 종사자(-3.9%p), 판매 종사자(-2.6%p)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업체 규모와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변화

다음으로는 위의 집단들의 2004-2013년 사이에 사업체 규모와 종사상 지위에 따른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종사상 지위별 특징을 분류하기 위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으로 크게 분류하고, 상용직의 경우 기간에 제한이 있는 기간제 상용직)과 기간에 제한이 없는 비기간제 상용직으로 구분하여 그들 간의 차이도 보고자 한다.



<표 5>에 따르면 4년제 대졸 이상 남성은 2004년과 2013년 사이 10~29인의 사업체 규모(5.8%p)에서 가장 큰 취업자 비중의 증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4인 이하와 30인 이상의 사업체 규모에서 취업자 비중이 모두 감소하여 전체 고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 본 취업자 비중은 29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비기간제 상용직(7.4%p)이 크게 증가했고, 그 밖의 지위에서는 대부분 감소하였다.

전문대졸 이하 남성은 5~9인 규모의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감소하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본 취업자 비중은 비기간제 상용직(5.9%p)과 기간제 상용직(0.4%p)에서

<표 5> 2004~2013년간 20대 학력별 남성의 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 지위별 고용 변화

(단위 : %)

학력	사업체 규모	상용		임시직	일용직	자영/고용주	무급가족	전체
		비기간제	기간제					
4년제 대졸 이상	1~4인	1.6	0.1	-1.7	-0.1	-1.8	0.7	-1.1
	5~9인	1.1	0.3	-1.0	-0.1	0.1	0.0	0.2
	10~29인	4.7	-0.2	1.1	0.1	-	-	5.8
	30~99인	-1.9	-0.4	-1.4	-0.1	-	-	-3.8
	100~299인	-0.3	-1.1	-0.5	0.0	-	-	-1.9
	300인 이상	-1.2	-0.9	-0.3	-	-	-	-2.4
	전 체	4.0	-2.3	-3.8	-0.2	-1.7	0.7	-3.3 <sup>4)</sup>
전문 대졸 이하	1~4인	1.3	0.1	-2.1	-0.9	-1.6	0.4	-2.8
	5~9인	2.4	0.2	-1.1	-0.8	-0.1	-0.3	0.4
	10~29인	1.6	0.3	-1.6	-0.5	-	0.0	-0.2
	30~99인	0.0	-0.3	-0.5	-0.1	-	-	-1.0
	100~299인	0.3	-0.1	-0.3	0.0	-	-	-0.2
	300인 이상	0.3	0.1	-0.5	0.0	-	-	-0.1
	전 체	5.9	0.4	-6.1	-2.3	-1.7	0.0	-3.8

주 :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는 졸업·종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 기간제 상용직은 비정규직의 한 형태로 비기간제 상용직과는 구분이 필요하다. 상용직 안에는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도 존재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세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 4) <부표 1>~<부표 3>과 <표 5>~<표 6>의 2004-2013년 사이의 전체 고용률 증감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2004년 또는 2013년에 잡히지 않은 값에서 비교연도의 값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20대 남성의 10~29인 사업체 규모에서 자영/고용주의 지위를 갖는 취업자는 180여 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집단의 2013년 취업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2013년의 값을 0으로 보고 2004년의 값을 뺀 것이 아니라 missing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 고용률의 차이가 존재한다.

증가하였고, 기타 모든 지위에서는 감소하였다.

<표 6>에서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20대 여성의 경우, 10~299인 사이의 사업체 규모에서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여 전체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본 취업자 비중은 비기간제 상용직(7.6%p)과 기간제 상용직(1.5%p)에서 증가하였고, 임시직(-8.8%p)과 일용직(-0.4%p) 등 그 밖에 모든 지위에서 감소하였다.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경우 10년 사이에 비기간제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고, 임시직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표 6>에서 전문대졸 이하 여성은 5~9인과 10~29인의 중소형 사업체에서 취업자 비중이 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30인 이상의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증감을 보면 비기간제 상용직이 크게 늘었고, 임시직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4년제 대졸 이상 남성은 비기간제 상용직을 제외한 모든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였다. 반면 이 밖의 집단들에서는 임금근로자 중 비기간제 상용직과 기간제 상용직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임시직과 일용직 종사자에서 감소하였다.

<표 6> 2004~2013년간 20대 학력별 여성의 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 지위별 고용 변화

(단위 : %)

학력	사업체 규모	상용		임시직	일용직	자영/고용주	무급가족	전체
		비기간제	기간제					
4년제 대졸 이상	1~4인	2.2	0.2	-0.3	-0.1	-0.6	-0.2	1.2
	5~9인	3.6	-0.3	-3.1	-0.3	0.1	0.0	0.2
	10~29인	1.8	0.5	-3.8	0.2	-	-	-1.3
	30~99인	-1.4	0.9	-1.1	0.0	-	-	-1.6
	100~299인	0.3	0.2	-0.7	0.0	-	-	-0.1
	300인 이상	1.0	0.0	0.1	-0.1	-	-	1.0
	전 체	7.6	1.5	-8.8	-0.4	-0.4	-0.2	-0.7
전문 대졸 이하	1~4인	3.5	0.2	-1.0	-1.1	-0.3	-0.7	0.5
	5~9인	3.5	0.7	-1.8	-0.2	0.0	0.0	2.2
	10~29인	4.0	0.4	-1.7	-0.2	-	0.0	2.5
	30~99인	0.5	-0.1	-0.9	-0.2	-	-	-0.7
	100~299인	-0.4	0.3	-0.2	-0.2	-	-	-0.5
	300인 이상	-0.1	0.2	-0.5	-0.1	-	-	-0.4
	전 체	11.0	1.5	-6.0	-2.0	-0.3	-0.7	3.5

주: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는 졸업·종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V. 특성별 임금

이제까지의 분석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로는 모든 집단에서 상용직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여성 상용직의 고용률 상승폭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청년들에게 상용직의 증가는 희망의 메시지일까? 그리고 여성의 전체 고용률 및 상용직 고용률 증가는 청년 여성들에게 정말 좋은 일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년고용의 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임금을 고려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 8월 자료를 이용하여 각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학력과 성을 나누어 종사상 지위별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저임금근로자를 구하고 이를 해당 지위의 임금근로자 수로 나누어 비중을 구하였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체로 일용직, 임시직, 기간제 상용직 순이었다(표 7 참조).

상용직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집단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이는 상용직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저임금 상용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문대졸 이하의 여성은 상용직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과연 남성보다 나은 고용률 지표를 보여준 여성은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내에서 남·여의 소득에 대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해 OLS추정을 해 보았다. <표 8>은 종속변수인 로그 시간당 임금에 대해 전체 20대 남성과 여성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나타낸 표이다. 우선 개인의 특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나이, 나이 제곱을 연속형 설명변수로 통제하였고, 교육수준은 더미변수로 통제하였다.

5) 고임금은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2/3를 초과하는 임금, 저임금은 같은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임금, 중간임금은 고임금과 저임금 사이를 의미한다. 해석상 주의할 점은 중위임금은 가운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통상적으로 한 명의 임금이라기보다 다수의 임금인 경우가 많다. 이는 자신의 임금에 대해 응답하면서 정확한 금액(예: 158만 원)보다 실제 응답한 금액(예: 160만 원)이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 또는 히핑 오차(heapung error)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50%가 아니라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저임금의 상한, 고임금의 하한 모두 비슷한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의 증감을 계산할 경우에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숫자의 증감보다는 비중의 변동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표 7〉 20대 청년층 종사상 지위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

		저임금근로자 고용비중					
		전체	상용		임시직	일용직	전체
			비기간제	기간제			
4년제 대졸 이상 남성	2004	2.1	0.5	1.6	16.7	55.1	4.0
	2009	0.5	0.5	-	20.1	64.4	4.8
	2013	2.4	2.4	-	23.9	38.9	6.1
전문대졸 이하 남성	2004	22.6	6.5	16.1	31.8	38.9	19.7
	2009	17.0	4.9	12.1	33.4	53.8	18.4
	2013	13.7	5.3	8.4	43.8	76.3	20.7
4년제 대졸 이상 여성	2004	8.8	3.7	5.1	19.1	39.0	9.3
	2009	7.6	2.7	4.9	17.8	68.0	8.6
	2013	12.0	3.1	8.8	29.7	82.0	9.9
전문대졸 이하 여성	2004	23.1	14.9	8.1	46.2	65.3	29.4
	2009	20.7	10.3	10.4	44.9	82.2	24.2
	2013	17.9	10.7	7.3	54.2	95.3	24.6

주: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는 졸업·종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20대 청년층 상용직 취업자와 전체 임금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표본에서 ‘성별 더미변수’의 계수에 통제 변수를 추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성별에 의한 임금격차만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는 위의 가정하에서 성별 더미의 추정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004년과 2013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성별\*연도를 포함시킨 교호항<sup>6)</sup>을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상용직 모형(1)은 성별, 연도, 성별\*연도, 나이, 나이 제곱,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통제하였다. 그리고 전체 임금근로자 모형(2)도 같은 모델로 통제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별 임금격차를 추정하여 정리하였다.

6) 교호항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조합하여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들 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다. <표 8>에서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OLS에서 성별\*연도(여성\*2013년)의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고,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OLS 결과 값은 성별\*연도의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상호작용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상용직은 성별\*연도의 교호항이 9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고, 음의 계수를 보이고 있어 이는 2013년의 여성의 임금수준이 2004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근로자(2)는 성별\*연도의 교호항이 음의 계수를 가지고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2004년 성별 격차와 2013년 성별 격차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각각의 상용직과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차이(log(남성임금) - log(여성임금))의 추정치는 개인특성만을 통제했을 때 계수값인 -0.068, -0.069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용직 여성의 평균임금은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면 2004년에는 -6.8%(-0.068\*100), 2013년에는 -11.7%[(-0.068+(-0.049))\*100] 수준으로 남성 상용직에 비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계수추정치들 통해 알 수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성별\*연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2013년의 여성의 임금수준은 2004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20대 청년층에서 여성의 전체 고용률과 상용직 고용률의 증가는 여성의 양적 고용에는 긍정적이거나, 고용의 질까지 향상을 가져왔다고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부표 2>를 보면 20대 청년 여성(4년제 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하)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와 취업자 비중이 2004년과 비교해 2013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경우 취업자 수는 약 51.7천 명 증가해 4.9%p 전체 고용률을 증가시켰고,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여성은 67.1천 명

<표 8> 상용근로자와 전체 임금근로자의 남·여 임금 OLS 결과

모형	Log 시간당 임금	
	상용직 (1)	전체 임금근로자 (2)
여성 임금격차	-0.068*** (0.014)	-0.069*** (0.014)
연도 (2013년)	0.404*** (0.015)	0.402*** (0.015)
성별*연도 (여성*2013)	-0.049* (0.020)	-0.024 (0.020)
나이	0.021 (0.040)	0.020 (0.039)
나이 제곱	0.0003 (0.001)	0.0004 (0.001)
교육 수준	Yes	Yes
상수항	-1.823*** (0.513)	-1.918*** (0.498)
Adjusted R-sq	0.415	0.360
Observation	5,116	8,014

주: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는 졸업·중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 p<0.05 \*\* p<0.01 \*\*\* p<0.0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의 취업자 수 증가로 9.2%p의 전체 고용률 증가를 불러왔다. 이는 높은 임금을 지니는 취업자가 아닌 돌봄 서비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VI. 결 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일 것이다. 이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정책적 논의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청년들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행된 정책들도 많았다. 하지만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앞의 분석을 통해 현재 노동시장에서 20대 청년의 고용현황의 몇 가지 특성을 확인했다. 첫째로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력\*성별에 따른 차이를 짚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과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의 고용변화가 지난 10년 사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고용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청년층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학업, 취업준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 안에서 괜찮은 일자리로의 유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20대 청년 여성의 고용은 증가했으나 고용의 질까지 향상된 것은 아니다. 여성의 25~29세의 고용률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 고용의 질을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 상황이 남성보다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임금근로자의 고용 규모를 보았을 때, 노동시장에서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수가 남성과 비교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청년층의 세분화이다. 남성의 고용률 하락, 그리고 여성의 저임금 문제 등을 통해 각 집단의 근심거리는 정책적 유도와는 다를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청년들을 단순히 사회에서 불리는 ‘청년’이라는 한 단어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그 효과가 전체 청년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까지 느껴진다.

30~40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력으로 일컬어진다. 20대는 미래 경제의 핵심인력이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예비 핵심인력인 청년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그리고 반복적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경제에 닥쳐올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LI**

### <참고문헌>

- 성재민(2011),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노동리뷰』 11월호, pp.76-96.  
정성미(2009), 「이슈분석: 20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 『노동리뷰』 4월호, pp.32-41.  
정한나·이태(2011), 「한국에는 Glass Ceiling 효과가 존재하는가?」, 『산업관계연구』 21(1), pp.153~183.

〈부표 1〉 2004~2013년간 20대 학력별 남성 고용 변화에 산업이 미친 영향

(단위: 천 명, %)

학력	산업	취업자 수					고용률				
		2004	2009	2013	증감		2004	2009	2013	증감	
					09~13	04~13				09~13	04~13
4년제 대졸 이상	농림어업	2.0	3.6	3.6	0.1	1.7	0.4	0.6	0.6	0.0	0.2
	광업	-	-	-	-	-	-	-	-	-	-
	제조업	109.1	86.0	86.9	0.9	-22.2	20.1	14.2	14.1	-0.1	-6.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3.2	4.7	3.1	-1.6	0.0	0.6	0.8	0.5	-0.3	-0.1
	하수, 원료재생·복원	2.7	1.3	2.2	0.9	-0.5	0.5	0.2	0.4	0.1	-0.1
	건설업	23.9	26.9	19.8	-7.1	-4.1	4.4	4.4	3.2	-1.2	-1.2
	도매 및 소매업	58.0	45.8	62.0	16.3	4.0	10.7	7.5	10.0	2.5	-0.7
	운수업	9.2	14.4	8.6	-5.8	-0.6	1.7	2.4	1.4	-1.0	-0.3
	숙박 및 음식점업	6.7	8.3	15.8	7.5	9.1	1.2	1.4	2.6	1.2	1.3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47.2	45.2	46.6	1.4	-0.6	8.7	7.4	7.5	0.1	-1.2
	금융 및 보험업	24.9	36.7	34.4	-2.3	9.5	4.6	6.0	5.6	-0.5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5.3	2.2	4.4	2.2	-0.9	1.0	0.4	0.7	0.3	-0.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4.1	62.1	59.1	-3.1	14.9	8.1	10.2	9.6	-0.7	1.4
	사업서비스	4.7	11.3	17.7	6.4	13.0	0.9	1.9	2.9	1.0	2.0
	공공행정 등	14.2	24.8	12.3	-12.5	-1.9	2.6	4.1	2.0	-2.1	-0.6
	교육서비스업	34.3	37.2	40.2	3.0	5.9	6.3	6.1	6.5	0.4	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19.0	20.9	20.2	-0.7	1.1	3.5	3.4	3.3	-0.2	-0.3
	예술·스포츠·여가 등	9.8	7.9	15.0	7.0	5.2	1.8	1.3	2.4	1.1	0.6
협회·단체·수리·기타	7.5	8.6	11.5	2.8	3.9	1.4	1.4	1.9	0.4	0.5	
가구내 및 자가	-	-	-	-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	
전 체	425.8	448.0	463.4	15.4	37.6	78.6	73.7	75.0	1.2	-3.6	
전문 대졸 이하	농림어업	12.9	9.4	17.0	7.6	4.1	0.8	0.7	1.4	0.7	0.7
	광업	2.4	1.1	0.1	-1.0	-2.3	0.1	0.1	0.0	-0.1	-0.1
	제조업	412.8	300.1	267.5	-32.6	-145.3	24.8	22.4	22.6	0.1	-2.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4.7	3.2	1.4	-1.9	-3.3	0.3	0.2	0.1	-0.1	-0.2
	하수, 원료재생·복원	2.7	5.8	2.5	-3.3	-0.1	0.2	0.4	0.2	-0.2	0.1
	건설업	113.8	75.2	52.2	-22.9	-61.5	6.8	5.6	4.4	-1.2	-2.4
	도매 및 소매업	267.4	198.6	184.8	-13.8	-82.6	16.1	14.9	15.6	0.7	-0.5
	운수업	50.4	47.8	32.9	-15.0	-17.5	3.0	3.6	2.8	-0.8	-0.3
	숙박 및 음식점업	105.1	85.2	91.7	6.5	-13.4	6.3	6.4	7.7	1.4	1.4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47.5	46.3	30.9	-15.3	-16.6	2.9	3.5	2.6	-0.8	-0.2
	금융 및 보험업	28.9	18.5	9.2	-9.3	-19.6	1.7	1.4	0.8	-0.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7	11.5	7.7	-3.9	-5.1	0.8	0.9	0.6	-0.2	-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2.2	31.2	28.1	-3.2	-14.1	2.5	2.3	2.4	0.0	-0.2
	사업서비스	52.3	51.1	52.8	1.7	0.6	3.1	3.8	4.5	0.6	1.3
	공공행정 등	12.3	16.1	9.9	-6.1	-2.4	0.7	1.2	0.8	-0.4	0.1
	교육서비스업	20.1	16.7	7.2	-9.5	-12.9	1.2	1.3	0.6	-0.6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15.8	19.3	18.8	-0.5	3.0	0.9	1.4	1.6	0.1	0.6
	예술·스포츠·여가 등	29.3	26.5	20.9	-5.6	-8.4	1.8	2.0	1.8	-0.2	0.0
협회·단체·수리·기타	72.7	49.6	47.9	-1.8	-24.8	4.4	3.7	4.0	0.3	-0.3	
가구내 및 자가	0.1	0.0	-	-	-	0.0	0.0	-	-	-	
국제 및 외국기관	1.8	-	-	-	-	0.1	-	-	-	-	
전 체	1307.7	1013.5	883.5	-130.0	-422.4	78.5	75.8	74.6	-1.2	-3.8	

주: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는 졸업·종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 2004~2013년간 20대 학력별 여성 고용 변화에 산업이 미친 영향

(단위: 천 명, %)

학력	산업	취업자 수					고용률				
		2004	2009	2013	증감		2004	2009	2013	증감	
					09~13	04~13				09~13	04~13
4년제 대졸 이상	농림어업	2.8	0.1	0.4	0.3	-2.4	0.4	0.0	0.0	0.0	-0.3
	광업	0.2	-	-	-	-	0.0	-	-	-	-
	제조업	43.2	54.9	45.0	-9.8	1.8	5.5	6.4	4.9	-1.5	-0.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1.4	2.7	2.2	-0.4	0.8	0.2	0.3	0.2	-0.1	0.1
	하수, 원료재생·복원	0.7	1.0	1.2	0.2	0.5	0.1	0.1	0.1	0.0	0.0
	건설업	10.1	11.7	11.2	-0.5	1.1	1.3	1.4	1.2	-0.2	-0.1
	도매 및 소매업	66.7	47.3	69.4	22.1	2.6	8.5	5.5	7.5	2.0	-1.0
	운수업	9.1	12.1	13.2	1.2	4.2	1.2	1.4	1.4	0.0	0.3
	숙박 및 음식점업	14.7	18.2	32.4	14.2	17.7	1.9	2.1	3.5	1.4	1.6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42.5	33.2	38.2	5.1	-4.3	5.4	3.9	4.1	0.3	-1.3
	금융 및 보험업	33.9	47.8	55.2	7.3	21.3	4.3	5.6	6.0	0.4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3.2	3.4	5.1	1.6	1.9	0.4	0.4	0.5	0.1	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7.4	53.3	61.8	8.4	24.4	4.8	6.2	6.7	0.5	1.9
	사업서비스	9.2	22.4	30.7	8.3	21.6	1.2	2.6	3.3	0.7	2.2
	공공행정 등	22.4	34.0	22.1	-11.9	-0.3	2.9	4.0	2.4	-1.6	-0.5
	교육서비스업	201.0	200.0	142.7	-57.3	-58.2	25.7	23.3	15.5	-7.9	-1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37.1	48.2	88.8	40.6	51.7	4.7	5.6	9.6	4.0	4.9
	예술·스포츠·여가 등	11.0	17.0	15.1	-2.0	4.1	1.4	2.0	1.6	-0.4	0.2
	협회·단체·수리·기타	12.7	10.7	19.8	9.0	7.0	1.6	1.2	2.1	0.9	0.5
	가구내 및 자가	0.1	-	-	-	-	0.0	-	-	-	-
국제 및 외국기관	1.2	-	0.3	-	-0.9	0.2	-	0.0	-	-0.1	
전 체	560.6	618.0	654.8	36.5	94.4	71.7	72.0	70.9	-1.2	-0.8	
전문 대졸 이하	농림어업	9.4	5.5	9.0	3.6	-0.3	0.4	0.3	0.6	0.3	0.2
	광업	0.1	-	0.2	-	0.1	0.0	-	0.0	-	0.0
	제조업	234.7	131.1	119.9	-11.2	-114.8	10.5	7.7	8.5	0.8	-2.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1.2	2.5	1.2	-1.2	0.1	0.1	0.1	0.1	-0.1	0.0
	하수, 원료재생·복원	0.6	1.8	1.6	-0.1	1.0	0.0	0.1	0.1	0.0	0.1
	건설업	46.4	25.5	18.8	-6.7	-27.5	2.1	1.5	1.3	-0.2	-0.7
	도매 및 소매업	311.5	207.2	153.8	-53.4	-157.7	13.9	12.1	10.9	-1.2	-3.1
	운수업	21.8	19.7	20.3	0.5	-1.5	1.0	1.2	1.4	0.3	0.5
	숙박 및 음식점업	109.0	88.0	83.2	-4.8	-25.8	4.9	5.1	5.9	0.7	1.0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51.5	39.8	28.4	-11.4	-23.0	2.3	2.3	2.0	-0.3	-0.3
	금융 및 보험업	84.6	48.5	24.0	-24.5	-60.5	3.8	2.8	1.7	-1.1	-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7	13.0	6.8	-6.2	-9.9	0.7	0.8	0.5	-0.3	-0.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6.3	61.6	58.8	-2.8	2.5	2.5	3.6	4.2	0.6	1.6
	사업서비스	35.1	44.7	38.6	-6.1	3.6	1.6	2.6	2.7	0.1	1.2
	공공행정 등	22.9	20.6	5.4	-15.2	-17.5	1.0	1.2	0.4	-0.8	-0.6
	교육서비스업	133.2	96.4	59.3	-37.1	-73.9	6.0	5.6	4.2	-1.4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173.2	203.4	240.2	36.9	67.1	7.7	11.9	17.0	5.1	9.2
	예술·스포츠·여가 등	25.1	16.2	14.0	-2.2	-11.1	1.1	0.9	1.0	0.0	-0.1
	협회·단체·수리·기타	78.7	65.1	59.7	-5.4	-19.0	3.5	3.8	4.2	0.4	0.7
	가구내 및 자가	0.8	0.1	0.1	0.0	-0.7	0.0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	
전 체	1412.7	1090.7	943.4	-147.5	-469.3	63.2	63.7	66.7	3.0	3.5	

주: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는 졸업·중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3〉 2004~2013년간 학력별·성별 고용 변화에 직종이 미친 영향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고용률				
		2004	2009	2013	증감		2004	2009	2013	증감	
					09~13	04~13				09~13	04~13
4년제 대졸 이상 남성	관리자	1.8	4.8	1.6	-3.2	-0.2	0.3	0.8	0.3	-0.5	-0.1
	전문가	188.4	206.9	202.0	-4.9	13.6	34.8	34.0	32.7	-1.4	-2.1
	사무직	142.8	143.4	151.5	8.0	8.7	26.4	23.6	24.5	0.9	-1.9
	서비스	16.6	21.6	17.8	-3.9	1.2	3.1	3.6	2.9	-0.7	-0.2
	판매	29.4	27.9	33.8	5.8	4.3	5.4	4.6	5.5	0.9	0.0
	농업	1.7	3.0	4.0	1.0	2.3	0.3	0.5	0.7	0.2	0.3
	기능원	17.0	14.6	18.1	3.5	1.1	3.1	2.4	2.9	0.5	-0.2
	기계조작	19.1	13.5	21.1	7.6	2.0	3.5	2.2	3.4	1.2	-0.1
	단순노무	9.0	12.2	13.6	1.4	4.7	1.7	2.0	2.2	0.2	0.5
	전 체	425.8	448.0	463.4	15.4	37.6	78.6	73.7	75.0	1.2	-3.6
전문대졸 이하 남성	관리자	6.0	3.0	0.6	-2.3	-5.4	0.4	0.2	0.1	-0.2	-0.3
	전문가	137.7	127.2	107.9	-19.2	-29.8	8.3	9.5	9.1	-0.4	0.8
	사무직	146.4	128.0	101.6	-26.4	-44.8	8.8	9.6	8.6	-1.0	-0.2
	서비스	118.8	105.5	112.1	6.7	-6.6	7.1	7.9	9.5	1.6	2.3
	판매	181.3	139.4	133.4	-6.0	-47.9	10.9	10.4	11.3	0.8	0.4
	농업	10.3	8.0	13.5	5.5	3.2	0.6	0.6	1.1	0.5	0.5
	기능원	240.2	162.0	111.7	-50.3	-128.5	14.4	12.1	9.4	-2.7	-5.0
	기계조작	298.0	200.4	191.0	-9.5	-107.0	17.9	15.0	16.1	1.1	-1.8
	단순노무	169.0	140.1	111.6	-28.4	-57.4	10.1	10.5	9.4	-1.1	-0.7
	전 체	1307.7	1013.5	883.5	-130.0	-424.2	78.5	75.8	74.6	-1.2	-3.9
4년제 대졸 이상 여성	관리자	1.4	0.3	0.7	0.4	-0.7	0.2	0.0	0.1	0.0	-0.1
	전문가	308.5	320.2	322.5	2.3	14.0	39.4	37.3	35.0	-2.3	-4.5
	사무직	200.6	242.9	262.6	19.7	62.1	25.6	28.3	28.4	0.1	2.8
	서비스	21.6	21.0	27.4	6.3	5.7	2.8	2.5	3.0	0.5	0.2
	판매	22.4	27.0	31.7	4.7	9.3	2.9	3.1	3.4	0.3	0.6
	농업	-	0.1	0.1	0.0	-	-	0.0	0.0	0.0	-
	기능원	1.3	1.0	2.7	1.6	1.4	0.2	0.1	0.3	0.2	0.1
	기계조작	2.1	3.0	3.2	0.2	1.1	0.3	0.4	0.3	0.0	0.1
	단순노무	2.7	2.3	3.2	1.0	0.6	0.3	0.3	0.4	0.1	0.0
	전 체	560.6	617.9	654.1	36.2	93.4	71.7	72.0	70.9	-1.1	-0.8
전문대졸 이하 여성	관리자	0.5	2.0	0.7	-1.3	0.2	0.0	0.1	0.0	-0.1	0.0
	전문가	335.1	316.3	315.0	-1.3	-20.1	15.0	18.5	22.3	3.8	7.3
	사무직	528.8	393.6	278.6	-115.0	-250.2	23.6	23.0	19.7	-3.3	-3.9
	서비스	171.1	140.5	132.7	-7.7	-38.4	7.7	8.2	9.4	1.2	1.7
	판매	230.7	152.3	109.0	-43.2	-121.7	10.3	8.9	7.7	-1.2	-2.6
	농업	6.9	3.1	7.8	4.7	0.9	0.3	0.2	0.6	0.4	0.2
	기능원	18.7	11.3	12.3	1.0	-6.4	0.8	0.7	0.9	0.2	0.0
	기계조작	67.7	28.4	38.4	10.0	-29.2	3.0	1.7	2.7	1.1	-0.3
	단순노무	53.1	43.3	48.8	5.5	-4.3	2.4	2.5	3.4	0.9	1.1
	전 체	1412.7	1090.7	943.4	-147.3	-469.3	63.2	63.7	66.7	3.0	3.5

주: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는 졸업·중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